

호남권 ICT창업 손익분기점 초과 14% 뿐...전국 '최저'

ICT 중기 실태조사...호남권 730개 창업 기업중 개인 업체 99.8% 창업 준비 기간 평균 26.2개월...장애요인 1위 '자금 확보' 49%

호남·제주권 정보통신기술(ICT) 창업을 하는 데 평균 26.2개월이 걸리며, 창업기업 절반 가량(49.0%)는 자금 확보를 창업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벤처기업협회가 펴낸 '2020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담겼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제주 730개 ICT 중소기업을 포함해 2만749개 모수를 추정해 표본조사를 벌였다.

호남·제주권에서는 730개 기업 가운데 99.8%가 개인 창업 형태로 ICT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창업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세종·충청·강원 권역(6.3%)이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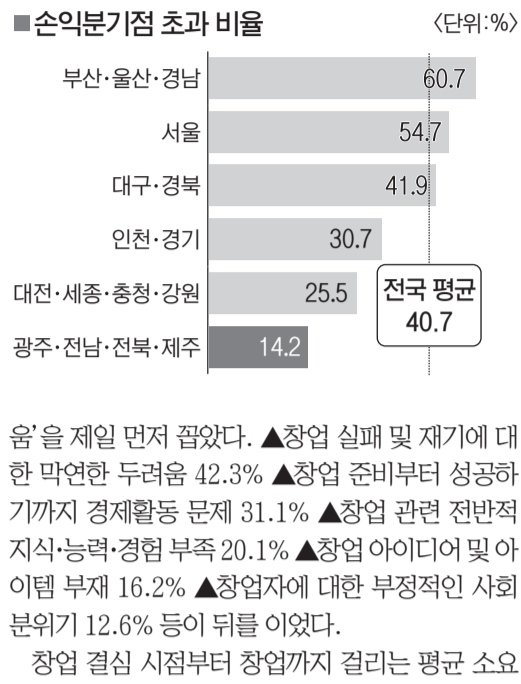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말 기준 손익

분기점을 초과했느냐고 묻자 14.2%만이 초과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 40.7%를 크게 밑돌고, 부산·울산·경남 60.7%, 서울 54.7%, 대구·경북 41.9%, 인천·경기 30.7%, 대전·세종·충청·강원 25.5%에 이어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손익분기점을 넘긴 시점은 창업 뒤 2.1년이었는 데, 역시 전국 평균(1.7년)보다 오래 걸렸다.

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회라 판단해서'가 70.2%로 가장 많았다. '창업 관련 정부 정책사업 참여 계기'가 25.8%로 뒤를 이었고, '창업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는 답변도 4.0% 있었다.

창업 장애요인을 물으니 지역 ICT 창업자 절반 가량(49.0%·복수 응답)은 '창업 자금 확보의 어려



움을 제일 먼저 꼽았다.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42.3% ▲창업 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 경제활동 문제 31.1% ▲창업 관련 전반적 지식·능력·경험 부족 20.1%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부재 16.2%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12.6%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 결심 시점부터 창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6.2개월로, 전국 평균(21.9개월)보다 4.3개월 정도 길었다.

1년 이상·2년 미만 걸린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2~3년 미만 32.6%, 3년 이상 21.3%, 1년 미만 8.7% 순이었다. 권역별로 소요 기간을 보면 서울(15.3개월), 부산·울산·경남(18.0개월), 인천·경기(23.0개월), 광주·전남·전북·제주(26.2개월)

월), 대전·세종·충청·강원(33.2개월), 대구·경북(37.8개월) 순으로 짧았다.

창업 과정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본인 자금'이 73.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은행·비은행 대출 51.5%, 정부 융자·보증 1.4% 등 방법도 있었다.

지역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례는 27.2% 비중을 나타냈고, 나머지 72.8%는 신청한 적 없다고 답했다. 신청했으니 탈락해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 절차나 구비서류가 복잡해서'를 73.0%(복수 응답)로 제일 먼저 꼽았다. ▲신용등급 제한 등 기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55.1%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서 40.6% ▲신청평가 요건이 까다로워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18.0% 등도 이유로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전국 최초 광주에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

6월 준공...광주시에 기부채납 안전홍보 영상 등 전시·체험 다양



주해양에너지는 최근 유관기관과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 회의를 열었다. <해양에너지 제공>

주해양에너지가 오는 10월 개관하는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에 '가스안전체험시설'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설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 2층에 들어서며, 해양에너지는 이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가스안전체험시설에 드는 예산 규모는 2억 4200만원이다. 해양에너지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설 구축안을 공모하고, 지난달에는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정기선 해양에너지 CSO(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관리본부장과 최민철 소방안전본부장, 박원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홍보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을 기부하기로 했다.

빛고를 국민안전체험관은 오는 6월 준공해 3개월간 시험 운영 후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연 면적 7810㎡에 1개동 4층 규모로, 8개 체험존, 23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해양에너지는 지역사회에 가스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가스안전문화 3·3·3운동', '가스안전스쿨', '빛고를 안전체험 한마당', '지역행사 가스안전체험부스 운영' 등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기·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

전남도, 상환유예·만기 연장 접수 이자 최대 3.0%까지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는 12월까지 상환일인 사업장 중 신청일 기준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최대 2000여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분할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원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일시상환을 이용 중인 사업장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에 따른 이자는 전남도가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3월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 한도를 매출액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도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소상공인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으로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재단 보증증을 이용 중인 16만여 사업체 3500억원의 신용보증 대출금의 보증기간을 1년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자원공사 '초기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초기 15일·도약 22일까지 신청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 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초기창업패키지'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창업 도약패키지'는 22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국

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이들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고속성장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등 '그린 에너지' 분야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의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별 최대 1억원 이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 이내(2014년 3

월~2018년 3월)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극대화 및 납품 실적 등 성과 창출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성장 촉진 프로그램 및 마케팅, 디자인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공기업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장)로 전국 121개소의 사업장을 활용하고,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의 역량을 창업기업과 공유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전남도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만원과 인증서·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곳에 인센티브

전남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전남도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만원과 인증서·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jeonnam.go.kr)나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우수기업에 도전하도록 유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 최종 20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80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